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 송의목공예마을’ 기록				
구술자명	김창선	면담자	조연희		
면담장소	노아공방	면담지원	최지은		
면담 일시	2022년 11월 2일	회차	1	시간	1시간 2분 25초
자료번호	MichuholCA-08-00002047				
구술 개요	1999년 노아목재를 시작, 20대 때 목형 만드는 기술을 배움,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래하고 있는 회사가 있음, 인류에 처음으로 목재 제품(배)을 만든 사람 ‘노아’를 따서 상호명 만들, 좋은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를 써야함, 후배의 요청으로 도와주다가 옆에 자리가 나서 하게 되었음, 아내와 공동사업자로 같이 운영, 마음으론 85세까지 하고 싶음, 후배 기수가 나와서 끊어지지 않고 되물림 됐으면.				
주요 색인어	연구소, 기능장, 목공, 군대, 목형, 적성, 나무, 도면, 파티션, 진상 고객, 와인 진열장, 단골 손님, 종교적, 좋은 재료, 주문, 3D업종, 호주, 장인, 대우, 결혼, 가족, 활성화, CNC, 생활, 새터민, 목공예센터, 목공 박물관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생애 & 과거			00:00:35~ 00:03:02	▷ 활동기획안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녹취문	
- 고향은 강원도 영월. 초등학교 졸업 후 부천으로 올라옴. - 군대 제대 후 한국선박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창원기능대학에서 기능장을 땀. 이후 전공을 살리기 위해 인천으로 왔음.					
2. 노아목재			00:03:03~ 00:15:55		
- 퇴직 후 1999년 노아목재를 시작함. - 군대에 목공 주특기로 들어가서 목공 파트 책임을 맡았음. - 20대 때 목형 만드는 기술을 배웠었음. - 목형 하는 사람들은 도면이 밝음. - 처음엔 파티션을 많이 만들었었음. 지금은 인천 파티션 총판임. - 일보다는 인간관계의 힘듦.					
3. 기억에 남는 작품 & 고객			00:15:56~ 00:26:51		
- 국내에서 못하는 것들이 기억에 남음. 불란서 살롱에 있는 와인 진열장. -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래하고 있는 회사. - 교회, 성당, 절 등 종교 쪽에서 거래가 많이 옴.					
4. 노아목재 이름			00:26:52~ 00:32:41		
- 인류에 처음으로 목재 제품(배)을 만든 사람 ‘노아’ - 그 튼튼한 배처럼 그런 물건을 만들겠다는 의미.					

- 목재는 정품으로 받음. 문제가 있는 것은 아예 받지 않음. - 좋은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를 써야함. - 내가 만든 제품이 폐기되는 걸 싫어해서 연락 오면 다시 가지고 옴.		
5. 과거와 현재 주문 변화	00:32:42~	
-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아직도 처음 만드는 제품이 있음.	00:33:59	
6. 승의 목공예거리		
- 후배의 요청으로 6개월 정도 도와주다가 옆에 자리가 나서 하게 되었음. - 원래 자리에 있던 물건들을 다 넘겨받게 되었음. - 10년 전부터는 3D 업종이라 생각해 젊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음. - 한국과 일본의 장인의 대우가 다름. - 78년도에 결혼했음. - 아내와 공동사업자로 같이 운영하고 계심. - 새로운 것을 접목시켜서 활성화 시키면 좋겠음. - 마음으론 85세까지 하고 싶음. - 후배 기수가 나와서 끊어지지 않고 되물림 됐으면 좋겠음. - 새터민들을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음.	00:34:00~ 01:02:25	